

선결제 릴레이, '제2의 주먹밥 운동'으로 기록된다

광주비상행동, 고문단·지도위원·공동대표단 간담회 도서 발간 추진... '尹 파면까지 매주 토요일 쫓기대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친 '선결제 릴레이'가 도서로 기록된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8일 오전 전일빌딩245에서 고문단·지도위원·공동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광

주비상행동 경과 ▲구성과 운영 체계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활동 방향 관련 논의에선 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던 5·18민주광장 인근 상가를 중심으로 펼쳐진 '선결제 릴레이'를 '광주 제2의 주먹밥 운동'으로 명명하고 백서를 통해 기록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철용 고문은 "시민들의 선결제 운동과 어묵·떡국 나눔을 보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 나눔을 보는 것 같았다"며 "여러 언론에서 미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제2의 주먹밥 운동'으로 기록해 백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의 호응이 잇따르면서 비상행동은 우선 종합보고서 형식의 도서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확한 절차와 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회대개혁 위한 개헌

초안 작성 후 국회 전달 ▲새로운 정부 출범 앞서 10-30대 젊은 층 의견 종합 및 광장 문화 조성 ▲SNS에 의한 확산 영향 극복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이 나와 비상행동은 이에 대해 논의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2시 YMC A 무진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0일에는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상상하라 7공화국' 강연을 열 계획이다. 또 윤 대통령의 파면이 이뤄지기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18민주광장에서 시민궐기대회를 이어간다. /주성학기자

광주서도 '尹 계엄' 정신적 손배소 청구

광주여성변호사회, 23명 '무료대리' '12·3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유사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광주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 2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1명당 청구 위자료는 10만원이 다. /안재영기자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여성변호사회에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원고 1만여명을 모집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안재영기자



“지진 발생하면 이렇게 해요” 18일 오전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재난안전체험교실'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지도 하에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등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을 익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학동4구역 철거 '불법 수주'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檢, 피고인 3명 모두 실형 구형

붕괴 참사로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를 부당하게 파내고, 이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해 2월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8일 도시및주거환경경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들에게 5천만원을 주는 등 불법으로 석면 철거 공사를 파냈는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회사 운영을 위해 학동현장 공사를 파려면 브로커에게 금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 해 2월5일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은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별도 기소됐다. /안재영기자

난로 피우다 불...80대 부부 화상 광주 한 폐식당에서 80대 부부가 난로를 피우다 화재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북구 유동 한 상가 1층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상가 1층이 전소됐고, 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식당 맞은편에 거주하던 A(40대)씨가 불을 끄려던 노부부를 만류하다 연기를 마셨다. /안재영기자

전남경찰, 나주시의회·여수시 압수수색

의장단 금품 선거·소제지구 개발 특혜 관련

전남경찰청이 나주시의회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각각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 2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 당시 제외됐던 나머지

피의자들. 이와 관련, 전남경찰은 나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같은 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여수시 소재 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특정 건설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안재영기자

진도서 의식 잃은 80대, 병원 10여곳 문의 끝 광주 이송

광주서도 2차 종합병원→대학병원 전원

진도 한 다리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80대가 응급실 인력 부족 등에 광주 한 병원으로 겨우 이송됐다. 18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6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수로에 의식을 잃은 환자 A(80대)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체온증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의 A씨를 구조했고, 신고 접수 2시간이 지난 오후 9시10분께 광주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완료했다. 병원 이송 전 소방 당국은 전남지역 종합병원과 광주지역 대학병원 등 10여곳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거절 사유 대부분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치료 불가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후 광주 한 대학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곳으로 전원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A씨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다리를 걷던 중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재영기자

檢, '보도방 이권 다툼' 보복살인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권 다툼에 살인을 저지른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을 구형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더라도 사건 정황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